

광주시, 명승 ‘환벽당’ 자연경관 개선사업 본격화

국가유산 보존·재창조 추진
내년 국가예산 29억원 확보
충효동 왕버들군 후계목 이식
천연기념물 동물관 등 설립도

광주시가 내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환벽당의 자연경관을 개선하고, 천연기념물 동물보존관을 설립한다.

광주시는 내년 국가유산 관련 국비를 29억원 확보해 국가유산 보존과 가치 재창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6억원 대비 5배 늘어난 것으

로, 광주시는 올해 자치구 정책회의, 문화유산 국비 발굴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비를 확보했다.

또 광주문화재돌봄센터는 문화재청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돌봄사업 평가에서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문화유산 보존·관리 역량과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내년 국가유산 보존과 가치 재창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환벽당’의 자연경관 개선 및 주변 유적지 발굴, 충효동 왕버들군 후계목 이식, 천연기념물 동물보

존관 설립 등 16개 국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사업을 기획·시행하며, 문화재청 심의와 자문을 거쳐 진행한다.

환벽당은 성산별곡 정철이 스승 김윤제의 가르침을 받으며 학문에 정진한 곳으로 그 시절 연분홍 꽃비가 내리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하다.

광주시는 이 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환벽당 뒤편 화계(층계 모양으로 단(段)을 만들고 단마다 화초를 심은 시설)를 설치해 배롱나무와 매화를 식재할 예정이다. 또 단풍나무길과 어울리는 돌담과 왕대숲을 조성하는 등 국가유산 재창조 사업을 추진한다.

환벽당 주변 유물발굴조사도 추진한다. 돌무리가 길게 이어진 구조물인 석열의 조성 경위와 기와편 등 유물을 수습해 향후 정밀 발굴과 종합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충효동 왕버들군은 충효마을의 상징숲이자 비보(裨補)숲으로 조성됐으며, 김덕령 나무라고 불리는 등 나무와 관련된 유래나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다. 충효동 왕버들군 보존을 위해 후계목을 이식하고, 관람객이 안전하게 진입해 주변을 관람할 수 있도록 순환형 관람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조류충돌 등으로 장애를 입어 자연방

사가 불가능한 천연기념물 원앙·수리부엉이 등을 보호하는 동물보존관을 우치공원에 설립한다. 보존관은 방사장과 치료시스템을 구축,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과 생태해설,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시민의 자연유산 보존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명희 문화유산자원과장은 “올해 재정 위기 상황에 대비해 내년 국가유산 사업 국비를 최대한 확보했다”며 “확보된 재원으로 국가유산 명승 충효동 환벽당, 천연기념물 왕버들군, 동물보존관 등 국가유산 보존과 가치 재창조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대창운수·대창석유, 광주시에 돌봄이웃 성금 전달

대창운수와 대창석유가 돌봄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3000만원을 광주시에 전달했다. (사진)

광주시는 26일 오후 비즈니스룸에서 대창운수와 대창석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돌봄이웃 지원 성금 30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된 성금 3000만 원은 희망2024 나눔캠페인 기간에 이뤄져 광주지역 곳곳의 돌봄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대창운수와 대창석유는 2010년부터 이날까지 3억3000여 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꾸준히 나눔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고형석 대창운수 대표는 “한파와 폭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이웃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희망나눔 캠페인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전남도, 연말연시 저소득층에 수산물 꾸러미 선물

전남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이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영양만점 수산물 꾸러미를 선물한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수산물 꾸러미는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3000만 원을 확보해 추진한다.

27일부터 전달하는 수산물 꾸러미는 가정에서 요리하기 편한 대동적 수산물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굴비·자숙 전복·김

·미역·자반 등 5만원 상당으로 구성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활 참여자,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이용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이용자 등 5306명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수산물 꾸러미 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도 챙기고 수산물의 판로 확대로 어가 소득도 향상되는 일석이조 사업인 만큼 향후 확대해 더 많은 계층에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형지 기자

호남권생물자원관, 염생식물 환경정보 자료집 발간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해안 염생식물의 생육지 환경에 대한 기초자료를 모아 ‘염생식물 환경정보(토양, 기후) 자료집(I)’ (이하 ‘염생식물 자료집(I)’) 책자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염생식물은 해안이 혹은 내륙의 소금기가 있는 땅에 적응한 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바닷가 갯벌, 해안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생물 소재로서의 가치도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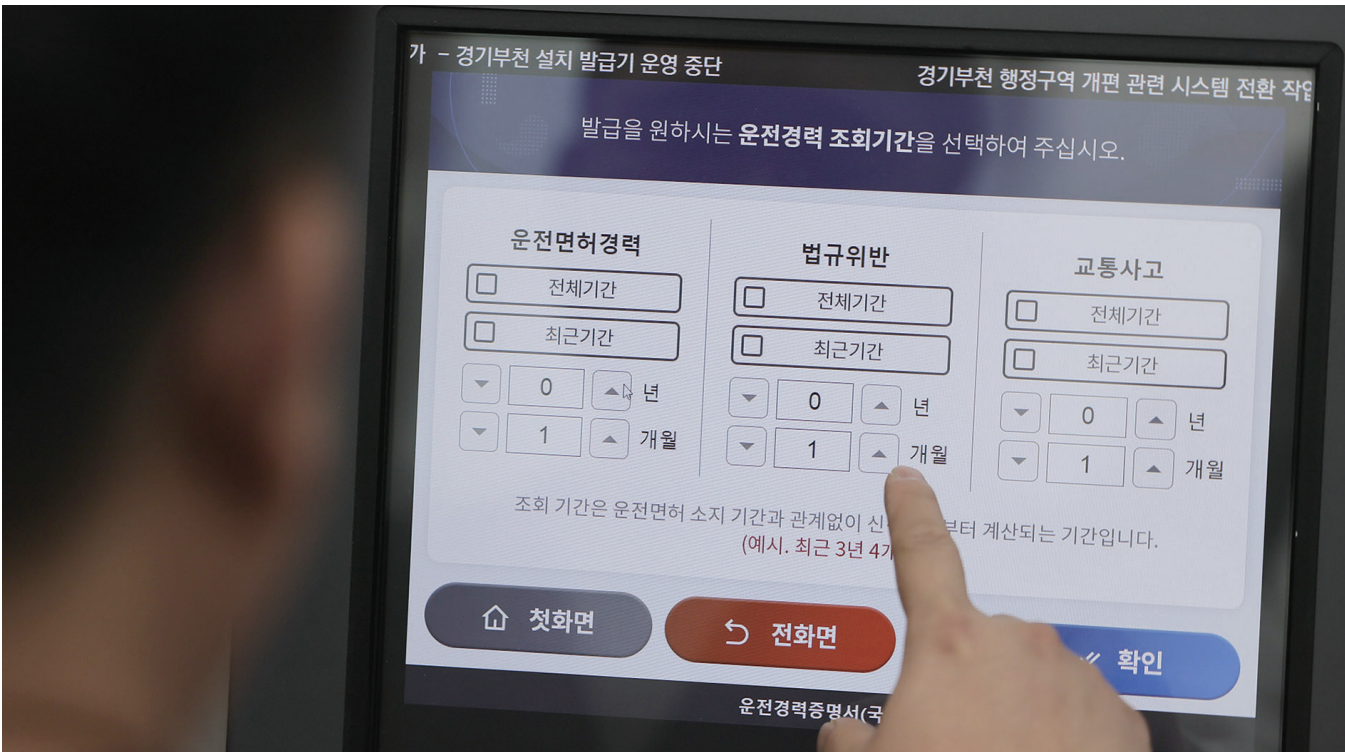
섬·연안 생물자원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는 기초자료가 부족한 염생식물의 활용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를 2022년부터 지속하고 있다.

염생식물 자료집(I)은 2023년에 수행한 ‘염생식물 환경정보 구축사업(1차)’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염생식물 20종의 형태·기재, 생육지 기후(연기온·강수량) 및 토양 환경(물리·화학적 특성), 생육지 사진 등 정보를 활용하기 쉽도록 수록했다.

자료집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누리집(http://hnibr.re.kr)에 게재돼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자원관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해 새로운 염생식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간해 염생식물의 증식과 생육지 보전·복원·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전국 무인민원 발급기서 경찰증명 서류 발급 시작

전국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경찰증명 서류 발급이 시작된 26일 광주 동구청에서 한 시민이 경찰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무인민원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운전경력증명서(국문), 운전경력증명서(영문) 등 3종이다.

나건호 기자

광주시 “올 한 해 ‘미래 광주’ 위한 밑그림 완성”

복합쇼핑몰·군공항 이전 등 자평강 시장 “시민 체감하는 변화 추진”

광주시는 올 한 해 광주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밑그림’을 완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는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을 실현할 ‘꿀잼도시 광주 프로젝트’, 미래차와 인공지능(AI) 산업 중심의 ‘미래먹거리 토대 구축’,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군공항 이전 기틀 마련’,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 기후위기 대응·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시외교와 포용도시의 실현’,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완성을 위한 투자·인프라·인재 3대 전략’ 등을 설계하고, 첫발을 내디

딘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이를 대전제로 보다 실천적인 주요 현안사업들의 가닥이 추려졌고,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산도 확보했다.

광주시는 대표적 사업으로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옛 전방·일신방지 부지 개발,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인공지능집적단지와 광주AI영재고 설립 등을 꼽았다. 또 광주역 창업밸리, 도시 전역 실증 시험무대화, 5000억 창업혁신펀드 조성 등 창업도시 완성의 3대 전략인 ‘투자·인프라·인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시민의 절수 노력과 영산강 취수 등을 이용한 적극적 가뭄 대응,

지산IC 진출로 대안 마련, 무등산 정상상시개방 등의 결실도 맺었다.

이 같은 정책 수행에 따라 광주시는 올 한 해 각종 평가에서 48개의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세계 최고 권위의 ‘제6회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받았다.

강기정 시장은 “위기는 극복하고, 성과는 축적하고, 기회는 열어간 한 해였다”며 “올해는 복합쇼핑몰 3종 세트, Y-프로젝트, 미래차·인공지능 중심 산업구조 전환 등 ‘미래 광주’의 밑그림을 그리고, 그 첫발을 내디뎠다.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도 확보된 만큼 내년에는 ‘손에 잡히는 변화’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6건 발표

‘일하고 연구하는 의회’ 성과

광주시의회의는 최근 의원연구단체별로 ‘2023년 정책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총 6건으로, 그동안 의원연구모임의 자체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함께해 왔던 학계·전문가·시민단체 등과 협업, 의제 발굴을 통해 성과물을 만들었다.

연구용역별 과제는 △지역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한 광주시의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 혁신 및 조례 기반 구축 방안 연구 △지역 창업 경제 성장을 위한 모델 발굴 방안을 제안한 광주시 창업 생태계 분석 및 조례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보행자 중심의 보행 환경 조성과 개선을 제안하는 광주 차 없는 거리 조성 기본 계획 △지역 물 순환 왜곡 현상 해소를 통한 도시재생 연결 방안을

제시한 복개하천 복원과 수변 공간 활성화 위한 도시재생 연구 △청년들의 효율적인 재난 안전 교육 훈련 개선방안 마련을 제안하는 광주시 청년 안전의식 분석 및 재난안전 교육·훈련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장애 전문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 보장 방안을 강구하는 광주시의 장애인문화예술과 문화예술시설 접근성 및 공연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등 6건이다.

김은지 기자